

한국농어촌공사, 해남 백포저수지 가뭄 대응...하천수 양수저류 추진

윤성수 기자 | 승인 2026.08.20 10:25

저수율 13%로 '심각' 단계...현산천 물 끌어 농업용수 확보
윤소하 상임감사 현장 점검...“가용 수자원 최대한 활용해야”



윤소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지난 19일 해남 백포저수지를 찾아 가뭄 상황과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. 사진=한국농어촌공사

매일일보 = 윤성수 기자 |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율이 13%까지 떨어진 해남 백포저수지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수를 끌어오는 양수저류에 나서는 등 가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.

윤소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현산면 백포저수지를 찾아 가뭄 상황과 농업용수 확보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.

현재 백포저수지 저수율은 13.0%로 가뭄 ‘심각’ 단계다. 지속적인 영농급수에 강수량 부족까지 겹치면서 저수량이 빠르게 줄어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.

이에 공사는 현산천의 물을 백포 배수간선을 거쳐 백포저수지로 공급하는 ‘2단 양수저류’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 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저수량을 확보하고 영농기용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.

윤 상임감사는 이날 양수저류 등 용수 확보 대책을 살펴보고 가뭄 대응에 나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“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가뭄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저작권자 ©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윤성수 기자